

2017년 5월 11일, 구좌읍 행원리 강순금 씨 댁, 이현정 조사.

강순금(여, 1925년생, 구좌읍 행원리)

• 줄거리: 구좌읍 행원에는 도깨비가 많이 나타났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되면 늘 도깨비불이 나타났다. 제보자의 큰아들이 월남으로 파병을 가게 되자, 제보자는 정화수를 길어다 조왕에 올려 정성을 드리려 마음먹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서 우물로 가는데 두레박 소리가 들려,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물을 뜯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었다.

제보자는 무서웠지만 아들이 건강히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랐으므로 이를 이기고 정안수를 떠왔다고 한다. 정안수란 정화수의 제주도 방언이다. 정화수는 첫새벽에 길은 맑은 우물물을 의미하는데, 예로부터 가정신앙의 대상 또는 매체로 여겼다.

[조사자] 이 동네 옛날에 도체비 모셔난 집이 많았던예?

[제보자] 행원인 다 도체비. 흐꼽힌 집인 다 도체비. 경 헷젠. 막 이젠 전깃불 나고 안 경 헤도. 옛날엔 비가 오젠 허건 어떻 허젠 하민. 도체빗불을 벨로벨롱 봐져. 게난 나가 아덜이 큰아덜이 군인 강 월남을 갓젠 헤부난. 겐 나는 ‘월남 가민 살안 오카.’

이 앞이 차 덴 디가 물통이라낫어. 물 길는 데. 영 왕 옛날엔 시겐 못 헤난 둘 보고 벨 빵. ‘아이고, 저 물 강 들려오랏아. 조왕할망 아니 올리곡 문전에 올령, 절 세 번 헤사. 저 군인 간 월남 간 아덜을 펜안히 헹 오주.’ 나 그것만 기대해낫어.

게난 나가 영 헤연 보난. ‘아이고, 물을 나가 먼저 강 떠오랏아 조왕에 올리고 문전에 올령, 기돌 혈 건디.’ 두레박 소리가 타르륵 헹 나난. ‘아이고, 어떻허리……. 나보다 먼저 강.’ 궂인 거, 궂인 거. 겐 영 이디서 산 보난. 아니라. ‘아이고, 궂인 거로구나…….’ 헤도 게도 모수운디 갓어. 이 아길 옛날은 월남 갓덴 허문 간이 다 털어져낫주. 이 애길 월남 간 애길 살려오젠 허문 나가 금시 모습데 헨 오지 못허주기.

- 핵심어 : 행원, 도체비, 비, 도체빗불, 물통, 두레박, 정안수, 정화수, 정성, 도깨비